

# 새出發!



新任 李永熙 회장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 協會發展을 主導해 주신 歷代 會長님과 退任하는 吳雲東 前任 會長님, 그리고 新舊 任員 및 事務處 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大韓建築士協會 歷史의 새로운 章앞에 서 있습니다.

새 時代 새協會를 要請하는 歷史의 潮流 속에 19代 會長에 就任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協會를 일구어 오신 先輩 會員께 깊이 머리 숙입니다. 특히, 激變期에 協會를 잘 이끌어 오신 吳雲東 회장님의 勞苦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會員 여러분!

昨今の 時代變化는 가히 놀라운 정도로 急速히 展開되고 있습니다.

政治, 經濟, 社會, 우리의 生活과 意識까지도 날로 새로운 것으로 變化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새것이 오늘의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變革의 時代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變革의 時代가 進展되고 있지만 우리 建築文化는 아직도 漫然된 構造的 不合理와 消耗의 慣行이 殘存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우리가 안고있는 問題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散積해 있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제의 宿醉가 덜 깬듯한 어리둥절한 狀態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時代의 흐름에 "總體的 不適應", 다시말해 "歷史的 遲滯"에 根本된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社會든 問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술한 課題들에 대한  
종합적인 診斷 과 對策이 없다는데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歷史는 이러한 遲滯를  
克服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興亡이 左右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가 이러한 歷史의 構造的 轉換에 鈍感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過去는 분명히 우리모두의 資產이면서 反省의  
거울이지만 그것이 밝은 未來의 前進을 위한 발걸음에  
끝없는 足鎖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不確定的인 要因이 많은 것이  
事實이지만 우리의 未來를 결코 悲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決斷과 노력에 따라 우리는 더할 수  
없는 歷史의 好期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自己改革으로 새로운 挑戰에 성공적으로  
應戰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에 到處에 散在한 不合理한  
關係法令과 慣行의 改善은 물론, 協會發展을 가로막고  
會員間의 葛藤을 深化시키는 어떠한 形態의 特典이나  
否定도 단호히 排擊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誠實하고 健全한 會員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結實을 거두면서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의 矜持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先進化된 建築 風土가  
定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目標를 가지고 우리 4千여 會員의  
權益保障과 協會의 位相을 強化키위해 公約한  
하나하나의 事案에 最善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 自身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會員 모두의 가슴 속에서 움트고 意識으로 꽃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오늘 이 時間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되새겨 봅시다.

한마디로 그것은 意識의 一代轉換이어야 합니다.  
時代의 흐름을 洞察하는 能動的 姿勢 變換과 舊態依然한  
小乘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大乘의 자세를 堅持하여야  
하겠습니다.

全國의 事務處 職員 여러분!

協會의 오늘이 있기까지 뒷전에서 默默地 일해온  
여러분들의 勞苦에 致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協會懸案에 대한 問題解決을 위한  
강한 欲求와 奮發을 促求합니다.

모든 判斷基準은 合理와 公定客觀性의 바탕위에 두고  
항상 小利를 버리고 大道로 가는 姿勢로 業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協會發展이 곧 여러분의 發展으로 昇華될  
수 있도록 處遇改善과 福祉向上에도 各別한 關心과  
誠實한 努力을 약속드립니다.

親愛하는 會員및 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協會의 새로운 歷史의 出發線上에 굳게  
섰습니다.

할 수 있다는 決意도 가득차 있습니다.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땀과 苦痛도 要求하겠습니다.

未來에 대한 自信感과 勇氣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딤시다.

感謝합니다.

1992. 12. 14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永 熙